

교회소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령 강림절 후 여섯째 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다음 주일 예배는 야외 예배로 드리고 파트력이 있습니다.
 - 시간 및 장소 : 오전 10시 30분, Silver Lake Shelter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최종훈 / 설교번역: 최은지
- 7월 안내 및 봉사: 어벤저스 목장

*향후 교회 일정

- 부서지기모임 : 7월 14일 예배 후 4시 30분 @시나이룸
- VBS : 8월 17일(토)

* 성서일과 Lectionary (제 26주)

삼하 1:1,17-27 / 시 130:1-8 / 막 5:21-43 / 고후 8:7-15

교회세운날 2017.6.11

24-26

6월 30일 (성령강림절 후 여섯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on Zoom
8월말까지 쉽니다.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oneheartkoreanchurch.com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시편 105:1-3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기도		최혜리 자매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같이
성경봉독	마가복음 15장 33-41절	인도자
설교	버려진 예수님의 외침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 5절)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파송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다같이
*축도		김경헌 목사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최근 김누리 교수의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국 사회가 소위 ‘헬조선’이라 불리는 불행한 사회가 되었는지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엿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의 첫머리에서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반적으로 빈약한 한국의 민주적인 삶에 대한 저자의 돌려짜기를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보여진 민주주의의 역사는 세계의 귀감이 될만 합니다. 4.19 혁명, 5.18 민주 항쟁, 6.10 민주 항쟁, 그리고 최근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 혁명까지 굵직한 저항의 역사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사에 큰 인상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굵직한 민주주의의 역사는 곧 바로 군부 독재와 군사주의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며 민중들의 큰 희생은 퇴색되기 일쑤였습니다. 김누리 교수는 화려했던 ‘광장 민주주의’가 ‘일상 민주주의’로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점을 지적합니다. 한국인의 정치 시스템은 민주화 되어 왔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봉건주의적이고, 파시스트적인 군사문화가 모든 조직과 일상 속에 스며있어서 ‘일상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나라의 가정은 여전히 가부장주의 일색이고, 여성과 남성의 차별은 여전히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병영사회화 되고 군사문화가 사회 곳곳에 침투한 결과, 잘못된 집단주의와 권위주의가 우리의 내면을 불구화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라며 민주주의란 민주적인 삶을 사는 연합체임을 강조합니다. 민주주의는 단지 정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인데 한국인들의 삶의 태도 전체가 민주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한국 사회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약자와 공감하고 연대하며, 불의에 분노하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태도 - 이러한 심성을 내면화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지 못하는 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독재의 야만으로 추락할 수 있다. 이것이 광장의 촛불이 내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타올라야 하는 이유다.”, (위의 책, 35쪽). 이 책을 읽다보니 ‘한국 교회도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군사문화에서 자유한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레 생기더군요. 한국 기독교의 성장도 한국 민주주의에 못지 않게 세계 교회사와 한 획을 그었는데, 실상은 빈약하고 알맹이가 없는 껍대기와 몸집 불리기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해결책도 김교수님의 한국 민주주의의 해결책과 맥이 같다 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약자와 공감하고 연대하며, 불의에 분노하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태도를 그는 말했는데 예수님이 추구하시고 몸소 보여주신 삶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진짜 예수쟁이들이 많아지면 사회는 자연스레 건강해지고 민주적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건강하고 민주적인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꿈은, 예수의 삶과 성품을 내면화하고 일상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고 실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참 예수쟁이들이 많아 질 때, 그때에야 현실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참 그리스도인, 이것은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작지만 큰 실천입니다.